

## 미용재건 목적의 유리피판이전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 탁 관 철

1937년 Daniel이 처음으로 유리피판이식술에 성공한 이래 미세수술을 이용한 유리피판이식술은 주로 신체의 기능적, 해부학적결손의 재건에 사용되어 왔고 유방결손, 함몰기형, 또는 body contouring 등 외형적 기형의 재건을 위한 목적으로는 Silastic 같은 implantation material이나 국소조직이전술 등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美國의 F.D.A.는 이제까지 널리 사용해 오던 Silastic Gel Implant가 장기간 경과후 부작용을 유발할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순수 미용 목적으로서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implantation material의 사용규제 뿐만 아니라 자가조직을 이용할 경우 장기간 경과후에도 합병증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전문의들은 되도록이면 자가조직으로서 필요한 재건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많은 양의 조직충진이 필요한 경우 미세수술을 이용한 유리조직 이식술이 매우 효과적이고 이상적이다.

미세수술을 이용한 유리조직 이식술은 대부분 신체 결손부위의 기능적, 해부학적 재건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주된 적응증이지만 저자가 지난 9년간 시행한 86예의 유리피판 이전술중 20예에 있어서는 주로 미용적 재건목적으로서 유리 복직근피판 또는 유리 대둔근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유리 전갑부 골-건피판을 이용한 하악부 기형 재건술, 유리전박피판을 이용한 뺨의 재건, 대망을 이용한 Romberg's disease의 치료, 유리 광배근 피판을 이용한 둔부의 함몰기형 재건술등을 시행하였고 장기간 추적 관찰하여 공여부에 현저한 추형을 남기지 않으면서 상당히 만족할 만한 미용적 재건 결과들을 얻었다.

여기에 그 증례들을 보고하고 순수 미용목적으로서의 미세수술을 이용한 자가 유리조직 이식술의 장단점 및 가능한 적응증, 앞으로의 발전 전망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